

# 보도자료

|        |                  |      |                         |
|--------|------------------|------|-------------------------|
| 보도 희망일 | 제한없음(즉시)         |      |                         |
| 배포일    | 2021. 04. 14.(수) | 홍보담당 | 기획처 홍보팀(880-9072, 5054) |
| 담당기관   |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 문의   | 기획팀 변영현 (880-5790)      |

## 광원산업 이수영 회장,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기금 1억원 쾌척

- 광원산업 이수영 회장(84, 법학 학사 1956-1960)이 모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이 회장은 TV 방송에서 본인의 암을 치료해 준 서울대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으며 이를 실천한 것이다.
- 서울대는 4월 13일(화)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이수영 회장, 서울대 이희범 총동창회장, 신찬수 의과대학 학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 평소 “기부하면 행복하다”고 자신의 신념을 밝혀온 이수영 회장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어머니는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그렇게 보고 자라 지금의 내가 있게 됐다”며 “모교의 훌륭한 인재들이 도전 정신을 갖고 미래를 향해 비상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오세정 총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시는 이 회장님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사표(師表)로서 남다른 귀감이 되고 있다”며 “출연해 주신 기금은

대학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는데 소중히 활용할 것” 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이수영 회장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기자, 목축업자, 부동산 사업가에 이어 최근 대한민국 과학 발전과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과학자 양성을 위해 이수영과학교육재단을 설립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당시 미혼이었던 이 회장은 서류에 사업의 상속 여부를 적는 곳에 자식이 없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결심을 해왔다.

※ 사진설명: 감사패 전달 후 오세정 총장과 이수영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